

## 아프리카스 성경의 번역 분석

### — 요한1서 1장을 중심으로 —

송영목\*

#### 1. 들어가는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공식 언어는 무려 11개인데,<sup>1)</sup> 이웃 나라 짐바브웨(Zimbabwe)의 16개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11개 공식 언어 가운데 아프리카스(Afrikaans)는 1652년 이래로 남아공에 이주하여 정착한 아프리카너(네덜란드인, 독일인, 휴그노[Huguenot]의 후손)가 사용 중인 언어이다.<sup>2)</sup> 18세기에 남아공에서 네덜란드어는 단순화되어 구어체 아프리카스로 발전되었고, 1875년경 문어체 아프리카스가 네덜란드어를 완전히 대체했다.<sup>3)</sup> 아프리카스의 10만개 단어 가운데 90% 이상은 네덜란

\* University of Johannesbu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ymsongrau@hanmail.net](mailto:ymsongrau@hanmail.net).

1) 역사상 첫 번째 중요한 성경이라 간주되는 칠십인역(LXX)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루어졌다. 최초의 아프리카스 성경 번역은 1893년에 두 토잇(S. J. du Toit)이 번역한 창세기인데, 이보다 앞서 19세기 중순부터 흑인 언어로 번역되었다. 앞으로 선교학적 통찰과 흑인신학을 성경 번역에 더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참고. K. J. Franklin and C. J. P. Niemandt, "Vision 2025 and the Bible Translation Movement", *HTS Teologiese Studies* 69:1 (2013), 4-5; J.-C. Loba-Mkole, "History and Theory of Scripture Translations", *HTS Teologiese Studies* 64:1 (2008), 256-257; S. V. Coertzer, "The African Agent Discovered: The Recognition and Involvement of the African Biblical Interpreter in Bible Translation", *Verbum et Ecclesia* 29:1 (2008), 78-85.

2) R. Macnab, "The Emergence of Afrikaans as a Literary Languag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Arts* 105 (1957), 373.

3) R. Macnab, "The Emergence of Afrikaans as a Literary Language", 374.

드어에서 유래했고, 포르투갈어와 말레이시아어의 영향은 120개 단어뿐이다.<sup>4)</sup> 남아공에서 영국의 지배가 저물어 가던 1914년에 영어와 더불어 아프리카스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고, 1916년에 교회에서 아프리카스가 네덜란드어를 공식적으로 대체했다.<sup>5)</sup> 현재 남아공과 나미비아 등에서 아프리카스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 600만 명, 최대 2000만 명이다.<sup>6)</sup> 아프리카스는 유럽에서 기원했지만 유럽에서 사용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언어로서,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볼 때 불과 약 14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신생 언어이다. 심지어 첫 번째 아프리카스 성경이 출판된 1933년에도 아프리카스의 표준화는 완료되지 않았다.<sup>7)</sup>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독자에게 매우 생경한 아프리카스 성경들의 번역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GNT<sup>5</sup>(2014)를 기준으로 삼아 1933년에 출판된 최초의 <아프리카스 성경>(Ou Afrikaanse Vertaling; 수정판은 1953년),<sup>8)</sup> 남아공의 아프리카너 교회가 현재 사용 중인 1983년의 개정판,<sup>9)</sup>

4) 남아공의 화란인 첫 총독인 판 리비엑(Van Riebeeck)은 남부 홀란드 출신이었으므로, 그의 언어 스타일이 아프리카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R. Macnab, “The Emergence of Afrikaans as a Literary Language”, 374.

5) R. Macnab, “The Emergence of Afrikaans as a Literary Language”, 376. 참고로 1875년경 ‘제1차 아프리카스 운동’은 남아공 중북부 내지의 아프리카너들이 아니라 케이프(Cape)에 정착한 네덜란드인 판네리스(A. Panneris)와 호헨하우트(C. P. Hoogenhout)가 주도했는데, 그들은 아프리카스어 성경 번역을 시도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네덜란드어(High Dutch)를 사용하던 아프리카너 교회는 정착 아프리카스를 ‘부엌 언어’(kombuistaal)라고 무시했다.

6) A. B. Geysers-Fouché, “Bybelvertalers en Bybelvertalings die Afgelope Honderd Jaar, in Besonder vanuit die Fakulteit Teologie van die Universiteit van Pretoria”, *HTS Teologiese Studies* 73:1 (2017), 2; C. H. J. van der Merwe, “The Bible in Afrikaans: A Direct Translation-A New Type of Church Bible”, *HTS Teologiese Studies* 68:1 (2012), 2.

7) J. C. Steyn, “Die Afrikaans van die Bybelvertaling van 1933”, *Acta Theologica* 29 (2009), 130.

8) <https://www.bible.com/bible/5/1JN.1.AFR53> (2019. 5. 6.). 2008년까지 1933년판은 700만부 이상 팔렸다. 참고로 1933년 이전에 아프리카너는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1550)의 영향을 받은 국가(staten) 번역(vertaling)인 네덜란드어 흙정역(De Statenvertaling Bijbel, 1637)을 사용했다. De Statenvertaling Bijbel을 저본으로 삼아 직역 중심의 1933년판 아프리카스 성경(주요 번역자는 토시우스[J. D. Totius], 키에트[B. B. Keet], 두 토잇[J. D. du Toit], 포스트마[F. Postma], 판 덜 메르베[N. J. van der Merwe])의 출판은 아프리카스 성경 주석의 출판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이 아프리카스 성경과 주석에 그 당시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반영되었으며, 1990년 이후로는 주석에 남아공 방식의 담론 분석과 서사 비평이 널리 적용되었다. W. Vosloo, “Hoe om die Bybel Beter te verstaan: Verklarings van die Bybel in Afrikaans”, *Verbum et Ecclesia* 22:1 (2001), 181-187; J. A. Naudé, “A Narrative Frame Analysis of the 1933 Afrikaans Bible”, *Studia Historiae Ecclesiasticae* 37:1 (2011), 255-256, 272-273; J. A. Naudé, “Soos ’n Hamer wat ’n Rots Vermorsel: Die Afrikaanse Bybel van 1933 as Vertaling”, *Acta Theologica* 29:2 (2009), 61.

9) *Die Bybel: Nuwe Vertaling* (Negende Druk, Kaapstad: Bybel Genootskap van Suid-Afrika, 1999 [Eerste Druk, 1983]).

그리고 <그리스어-아프리카스 행간성경>(2012)<sup>10)</sup>을 서로 비교할 것이다.<sup>11)</sup> 본 연구를 위해 남아공의 그리스어 학자와 신약학자들이 정립한 구조 분석을 요한1서 1장에 적용한다. 이 구조 분석은 아프리카스 성경의 번역의 정확도와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스 성경들의 번역의 특징에 집중하기 위하여, 참고 자료는 남아공의 신약학 및 그리스어 연구물을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본 연구는 약 30년 주기로 새롭게 번역된 아프리카스 성경들의 번역의 특징은 단문(短文)을 선호하며, 성경 번역에서 전통적 구분을 따라 표현한다면 1933/1953년판의 ‘문자적 직역(直譯)’에서 1983년판의 ‘역동적 의역(意譯)’을 거쳐<sup>12)</sup> 2012년판의 ‘직역’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증명할 것이다. 또한 특히 현재 남아공 강단용인 1983년판의 경우, 단어의 생략과 추가가 빈번하여 의역이 강하며, 동사와 전치사 및 단어의 성(性)과 수(數)에 부정확한 번역이 많아 새로운 번역이 필요함도 논증할 것이다.<sup>13)</sup> 본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한글 성경 번역들이<sup>14)</sup> 성경 원저자의 의도를 현대 독자들에게 가독성 있게 담아내는 데 통찰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10) J. van der Watt, J. Barkhuizen, and H. du Toit, eds., *Interliniêre Bybel: Grieks-Afrikaans* (Vereeniging: CUM, 2012). 이 <그리스어-아프리카스 행간성경>의 요한1서는 세계신약학회(SNTS) 요한분과 회장을 역임한 판 딜 바트(J. G. van der Watt)가 번역했다.

11) 2012년에 출판된 *Die Bybel: 'N Direkte Vertaling*(성경: 직역)은 남아공과 나미비아의 보수적인 아프리카너 교회에서 사용 중이다. 그 교회들은 1983년판(주요 번역자는 흐룬에발트 [E. P. Groenewald], 헬베르그[J. L. Helberg], 판 제일[A. H. van Zyl]) 대신, 직역에 충실한 1933/1953년판을 선호한다. C. H. J. van der Merwe, “How ‘Direct’ can a Direct Translation be?: Some Perspectives from the Realities of a New Type of Church Bible”, *HTS Teologiese Studies* 72:3 (2016), 1-2.

12) 1968년 번역 세미나에서 1933년판을 개정할 경우 의역에 충실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참고. A. B. Geysers-Fouché, “Bybelvertalers en Bybelvertalings die Afgelope Honderd Jaar, in Besonder vanuit die Fakulteit Teologie van die Universiteit van Pretoria,” 4.

13) 1990년대부터 남아공의 개신교와 천주교는 기능적 의역을 강조한 1983년판 아프리카스 성경보다 그리스어 원문에 더 일치하는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1996년부터(번역팀의 본격적 가동은 2004년) 새로운 아프리카스 성경 번역(*Die nuwe Afrikaanse Bybelvertaling*)을 추진 중이다. 이 성경은 1933/1953년판과 1983년판을 의존하지 않으면서, 직역과 의역을 균형 있게 담아 강단용과 청소년 교리교육, 그리고 성경 공부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도한다. 스텔렌보쉬대학교(University of Stellenbosch) 성경번역연구소에 의하면, 새 아프리카스 성경 번역은 콤브링크(H. J. B. Combrink) 교수의 리더십 아래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참고. <http://www.sun.ac.za/english/faculty/arts/cebita> (2019. 5. 4.); C. H. J. van der Merwe, “The Bible in Afrikaans”, 2-3.

14) 한 예로, 예장 고신의 총회성경연구소는 목회자용 ‘원문 새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 2. 요한1서 1장의 구문 및 구조 분석

### 2.1. 구문 분석<sup>15)</sup>

여기서 구문 분석의 목적은 요한1서 1장의 단어 수, 관계대명사, 동사, 전치사, 그리고 어순의 용례를 통계를 통해 살핌으로써, 구문상 특징을 간략히 살피는 것이다. 요한1서 1:1-10의 본문비평상, GNT<sup>5</sup>의 본문을 변경해야 할 만큼 논란이 되는 이문(異文)은 없다. 요한1서 1장은 요한이 선호한 관계대명사 7개를 포함하여 총 216개 단어로 구성된다. 먼저 동사와 관련하여, 가정법 동사는 10회, 분사는 1회, 부정사는 0회 등장하지만, 직설법 동사는 36회나 사용된다. 디포넌트(deponent)를 포함한 능동태 동사는 41회 등장하며, (신적)수동태 동사는 3회이다. 아오리스트(aorist) 동사는 8회, 완료 동사는 8회, 그리고 미완료 동사는 2회가 등장하지만, 현재 동사는 26회나 사용된다. 전치사는 총 14회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형제자매와 ‘함께’ 나누는 사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μετά*가 46회로 가장 빈번하다. 그리고 주어 동사 앞에 위치하여 강조된 경우는 11회이지만, 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한 경우는 2회에 불과하다. 어순과 관련하여,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한 경우는 7회이지만, 동사가 목적어가 앞에 위치하여 강조된 경우는 14회에 이른다.<sup>16)</sup> 따라서 요한은 현재 직설법 능동태 동사를 애용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로 흐르는 어순이 흔하므로 구문은 단순하다.

### 2.2. 구조 분석

이 글에서 구조 분석은 프레토리아대학교(Universiteit van Pretoria)의 그리스어 교수였던 로우(J. P. Louw)가 발전시킨 담론 분석 혹은 콜론 분석(discourse/colon analysis)을 따른다. 로우가 제시하는 본문의 표층에 흐르는 저자의 사고를 분석하는 담론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17)</sup> (1) 본문을 콜

15) 참고로 PUCHE의 쿠찌에(J. C. Coetzee)와 판 렌스버그(F. J. van Rensburg)가 발전시킨 사고 구조 분석(thought structure analysis)의 작은 단계인 구문 분석(syntactical analysis)은, 문장의 구성 성분인 단어들의 연관성을 주동사를 중심으로 밀줄과 화살표로 관련성을 표시하여, 저자의 사고 흐름(thought flow)을 쉽게 파악하도록 도식화하는 것이다. 이 구문 분석 방법은 권위 있는 신약학 학술지의 논문에 계속 활용되고 있다. 참고. F. J. van Rensburg, ed., *Conceiving a Sermon: From Exegesis to Delivery* (Potchefstroom: Potchefstroom Theological Publication, 2015), 89-100.

16) 이 글 2.1.의 통계는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필자가 직접 연구한 것이다.

17) E. A. Nida, et al., *Style and Discourse*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83), 77-82. 그리고 A. B. du Toit, “The Significance of Discourse Analysis for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Neotestamentica* 8 (1974), 54-60; 김상훈, “요한1서에서의 ‘코이노니아-조예’의 상관적 이해를 위한 의미론적 연구”, 『성경원문연구』 5 (1998), 81-83도 참고하라.

론(colon, clause)을 따라 나누고, (2) 2회 이상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인 표지(marker)를 각각 달리 표시하여 현저성(顯著性)을 드러내고, (3) 본문의 특정 부분에만 2회 이상 반복하여 등장하는 수평적(horizontal) 표지를 중심으로 콜론을 단락별로 분류하고, (4) 단락마다 수평적 표지를 반영한 구(句) 형식의 제목(caption)을 달고, (5) 담론의 구조적 흐름을 도표화하여 하나의 문장을 넘어 전체 구조 속에서 의미의 응집성을 설명한다. 위의 단계를 요한1서 1장에 적용하면 구조는 아래와 같다.

**A 생명의 말씀을 전함**

- 1(1) **Ο** ἦν ἀπ' ἀρχῆς,
- 2 **δ** ἀκηκόαμεν,
- 3 **δ** ἐωράκαμεν τοῖς ὀφθαλμοῖς ἡμῶν,
- 4 **δ** ἐθεασάμεθα
- 5 καὶ αἱ χεῖρες ἡμῶν ἐψηλάφησαν περὶ τοῦ **λόγου** τῆς ζωῆς-
- 6(2) καὶ ἡ ζωὴ **ἐφανερώθη**,
- 7 καὶ ἐωράκαμεν καὶ μαρτυροῦμεν καὶ **ἀπαγγέλλομεν** ὑμῖν τὴν ζωὴν τὴν αἰώνιον
- 8 ἥτις ἦν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 9 καὶ ~~ἐφανερώθη~~ ἡμῖν-
- 10(3) **δ** ἐωράκαμεν καὶ ἀκηκόαμεν, **ἀπαγγέλλομεν** καὶ ὑμῖν,

**B 교제와 기쁨**

- 11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κοινωνίαν ἔχητε μεθ' ἡμῶν.
- 12 καὶ ἡ κοινωνία δὲ ἡ ἡμετέρα μετ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μετὰ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 13(4) καὶ ταῦτα γράφομεν ἡμεῖς,
- 14 ἵνα ἡ χαρὰ ἡμῶν ἧ πεπληρωμένη.

**C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함**

- 15(5) Καὶ ἔστιν αὕτη ἡ ἀγγελία
- 16 ἣν ἀκηκόαμεν ἀπ' αὐτοῦ
- 17 καὶ ἀναγγέλλομεν ὑμῖν,
- 18 ὅτι ὁ θεὸς φῶς ἐστιν
- 19 καὶ σκοτία ἐν αὐτῷ οὐκ ἔστιν οὐδεμία.
- 20(6) Ἐὰν εἴπωμεν ὅτι κοινωνίαν ἔχομεν μετ' αὐτοῦ
- 21 καὶ ἐν τῷ σκότει περιπατῶμεν,
- 22 ψευδόμεθα καὶ οὐ ποιοῦμεν τὴν ἀλήθειαν.
- 23(7) ἐὰν δὲ ἐν τῷ φωτὶ περιπατῶμεν
- 24 ὡς αὐτός ἐστιν ἐν τῷ φωτὶ,

25 κοινωνίαν ἔχομεν μετ' ἀλλήλων

#### D 회개와 죄 사함

26 καὶ τὸ αἷμα Ἰησοῦ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καθαρίζει ἡμᾶς ἀπὸ πάσης ἁμαρτίας.

27(8) ἐὰν εἴπωμεν ὅτι ἁμαρτίαν οὐκ ἔχομεν,

28 ἑαυτοὺς πλανῶμεν

29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οὐκ ἔστιν ἐν ἡμῖν.

30(9) ἐὰν ὁμολογῶμεν τὰς ἁμαρτίας ἡμῶν,

31 πιστός ἐστιν καὶ δίκαιος,

32 ἵνα ἀφῆ ἡμῖν τὰς ἁμαρτίας

33 καὶ καθάρσις ἡμᾶς ἀπὸ πάσης ἀδικίας.

34(10) ἐὰν εἴπωμεν ὅτι οὐχ ἡμαρτήκαμεν,

35 ψεύστην ποιῶμεν αὐτὸν

36 καὶ ὁ λόγος αὐτοῦ οὐκ ἔστιν ἐν ἡμῖν.

요한1서 1장은 36개 콜론으로 구성된다.<sup>18)</sup> 구조 분석에서 중요한 표지는 2회 이상 반복된 의미상 중요한 단어를 가리킨다. 요한1서 전반부와 후반부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수직적 표지 4개는 ‘하나님/아버지’(θεός/πατέρα, 콜론 8, 12, 18, 19, 20, 24, 26, 35, 36; 9회), ‘예수/그리스도/아들’(Ιησοῦ/Χριστοῦ/υἱοῦ, 12[x3], 16, 26[x2]; 6회), ‘말씀’(λόγος/ὁ, 1, 2, 3, 4, 5, 10, 36; 7회), 그리고 ‘사귐’(κοινωνίαν, 11, 12, 25; 3회)이다. 수직적 표지를 종합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귐을 주신다.”라는 의미이다.

요한1서 1장 전체에 걸쳐 등장하지 않고 한 부분에만 등장하는 수평적 표지 11개는 다음과 같다: ‘죄’(ἁμαρτία, 콜론 26, 27, 30, 32, 34; 5회), ‘듣다’(ἀκηκόαμεν, 2, 10, 16; 3회), ‘보다’(ἐώρακαμεν, 3, 7; 2회), ‘생명’(ζωή, 6, 7, 8; 3회), ‘나타나다’(ἐφανερώθη, 6, 9; 2회), ‘전하다’(ἀπαγγέλλομεν, 7, 10; 2회), ‘빛’(φῶς, 18, 23, 24; 3회), ‘어둠’(σκοτία, 19, 21; 2회), ‘진리’(ἀλήθεια, 22, 29; 2회), ‘걷다/행하다’(περιπατῶμεν, 21, 23; 2회),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καθαρίζει, 26, 33; 2회). 수평적 표지를 종합하면, “(요한은) 나타나신 생명(예수님)을 듣고 본 것을 (수신자에게) 전함으로써, (수신자가) 어둠이 아니라 빛과 진리 안에 행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된다.”라는 내용이다. 환언하면 생명은 그리스천에게 빛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촉진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회개를 통해 회복된다.

요한은 소수의 수직적 표지를 통해서 요지를 밝히고, 수평적 표지로써

18) 요일 1장을 총 47개의 콜론으로 더 세밀하게 나눈 경우는 J. A. du Rand, “Analysis of the Johannine Letters”, *Addendum to Neotestamentica* 13 (1981), 1-2를 보라.

요지를 보완하며 상술한다. 이상의 논의는 아래 <표 1>처럼 요약된다.

<표 1> 요한1서 1장의 콜론 분석

콜론	절	주제	관계
1-10	1-3a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함	서론
11-14	3b-4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교제와 기쁨	목적
15-25	5-7c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함	조건 1
26-36	7d-10	회개와 죄 사함	조건 2

위의 도표에 나타난 콜론 묶음의 관계와 관련하여, 콜론 11-14에 *ἵνα*와 가정법 동사가 반복되어 서론의 목적을 강조한다. 그리고 뒤따르는 콜론 15-36에서 반복되는 *ἐάν*과 가정법 동사는 목적의 조건을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콜론 묶음인 콜론 26부터는 수평적표지 *ἁμαρτία*가 *ἐάν*과 가정법 동사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 3. 요한1서 1장의 아프리카스 성경의 번역 비교

GNT<sup>5</sup>와 아프리카스 세 성경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중요한 차이는 밑줄로 표기한다.

<표 2> 성경 번역 비교

GNT <sup>5</sup>	<아프리카스 성경> (1933/1953)	<아프리카스 성경> (1983)	<그리스어-아프리카스 행간성경>(2012)
1 <sup>ο</sup> ὅτι ἀπ' ἀρχῆς, ὁ ἀκηκόαμεν, ὁ ἑώρακαμεν τοῖς ὀφθαλμοῖς ἡμῶν, ὁ ἔθεασάμεθα καὶ αἱ χεῖρες ἡμῶν ἐψηλάφησαν περὶ τοῦ λόγου τῆς ζωῆς-	Wat van die begin af was, <u>wat</u> ons gehoor het, <u>wat</u> ons met ons oë gesien het, <u>wat</u> ons <u>aanskou</u> het en ons hande <u>getas</u> het <u>aangaande</u> die Woord van die <u>lewe</u> -  태초부터 있었던, <u>그</u> <u>생명의 말씀에 관하</u> <u>여</u>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Van die begin af was Hy daar. Ons het <u>Hom</u> <u>self</u> gehoor; ons het <u>Hom</u> met ons <u>oë</u> gesien; <u>ja</u> , ons het <u>Hom</u> <u>gesien</u> en met ons hande aan <u>Hom</u> <u>geraak</u> . Hy is die Woord, die <u>Lewe</u> .  태초부터 <u>그분</u> 은 계셨 다. 우리는 <u>그분 자신</u> 을 들었다. 우리는 우 리 <u>자신의</u> 눈으로 <u>그</u>	Dit <u>wat</u> van die begin af was, <u>wat</u> ons gehoor het, <u>wat</u> ons met ons oë gesien het, <u>wat</u> ons <u>aanskou</u> het en ons hande aan <u>geraak</u> het, <u>aangaande</u> die Woord <u>van</u> die <u>lewe</u> -  태초부터 있었던, <u>그</u> <u>생명의 말씀에 관하</u> <u>여</u> 우리가 들었고, 우리는 우리 눈으로

GNT <sup>6</sup>	<아프리카스 성경> (1933/1953)	<아프리카스 성경> (1983)	<그리스어-아프리카스 행간성경>(2012)
	보았고, 우리가 주목했고 우리 손으로 더듬었다.	분을 보았다; 그렇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 그분은 그 말씀이요, 그 생명이다.	보았고, 우리가 주목했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2 και ἡ ζωὴ ἐφανερώθη, και ἐωράκαμεν και μαρτυροῦμεν και ἀπαγγέλλομεν ὑμῖν τὴν ζωὴν τὴν αἰώνιον ἣτις ἦν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και ἐφανερώθη ἡμῖν.	en die lewe is geopenbaar, en ons het dit gesien, en ons getuig en verkondig aan julle die ewige lewe wat by die Vader was en aan ons geopenbaar is- 그리고 그 생명은 나타나 있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그 영생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증언하고 선포한다.	Die Lewe het gekom; ons het Hom gesien en is getuie daarvan, en ons verkondig aan julle die Ewige Lewe wat by die Vader was en aan ons geopenbaar is. 그 생명이 왔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그 영생을 선포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die Lewe is geopenbaar, en ons het gesien, getuig en verkondig aan julle die Ewige Lewe wat by die Vader was en aan ons geopenbaar is. 그 생명은 나타나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영생을 우리는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고 선포한다.
3 ὁ ἐωράκαμεν και ἀκηκόαμεν, ἀπαγγέλλομεν και ὑμῖν, ἵνα και ὑμεῖς κοινωνίαν ἔχητε μεθ' ἡμῶν. και ἡ κοινωνία δὲ ἡ ἡμετέρα μετ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ι μετὰ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wat ons gesien en gehoor het, verkondig ons aan julle, sodat julle ook gemeenskap met ons kan hê; en ons gemeenskap is met die Vader en met sy Seun, Jesus Christus.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도 선포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Hom wat ons gesien en gehoor het, verkondig ons aan julle, sodat julle aan ons gemeenskap deel kan hê. En dié gemeenskap waaraan ons deel het, is die met die Vader en met sy Seun, Jesus Christus. 우리가 보고 들었던 그분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그 사귀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Dit wat ons gesien en gehoor het, verkondig ons ook aan julle sodat julle ook gemeenskap met ons kan hê; ons gemeenskap is met die Vader en met sy Seun, Jesus Christus.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도 선포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GNT <sup>6</sup>	<아프리카스 성경> (1933/1953)	<아프리카스 성경> (1983)	<그리스어-아프리카스 행간성경>(2012)
4 <u>καὶ ταῦτα</u> <u>γράφομεν ἡμεῖς,</u> <u>ἵνα ἡ χαρὰ ἡμῶν</u> <u>ἢ πεπληρωμένη.</u>	<u>En</u> ons skrywe <u>hierdie dinge aan</u> <u>julle.</u> <sup>19)</sup> sodat <u>julle</u> <sup>20)</sup> blydskap <u>volkome</u> <sup>21)</sup> kan wees. <u>그리고 우리가 이것</u> <u>들을 너희에게 써서,</u> <u>너희의 기쁨이 완전</u> <u>하게 하려 함이다.</u>	<u>Dit</u> skryf ons sodat ons blydskap <u>volkome</u> kan wees.  <u>우리가 그것을 써서</u> <u>우리의 기쁨이 완전</u> <u>하게 하려 함이다.</u>	<u>Hierdie dinge</u> skryf ons sodat ons blydskap <u>volledig</u> kan wees.  <u>우리가 이것들을 써</u> <u>서 우리의 기쁨이 충</u> <u>만하게 하려 함이다.</u>
5 <u>Καὶ ἔστιν αὕτη</u> <u>ἡ ἀγγελία ἣν</u> <u>ἀκηκόαμεν ἀπ’</u> <u>αὐτοῦ καὶ</u> <u>ἀναγγέλλομεν</u> <u>ὑμῖν, ὅτι ὁ θεός</u> <u>φῶς ἔστιν καὶ</u> <u>σκοτία ἐν αὐτῷ</u> <u>οὐκ ἔστιν οὐδεμία.</u>	<u>En</u> dit is die verkondiging wat ons <u>van</u> Hom gehoor het en aan julle verkondig: God is lig <sub>2</sub> en geen duisternis is in Hom nie. <u>그리고 우리가 그분</u> <u>으로부터 들었던 그</u> <u>소식을 너희에게 선</u> <u>포한다: 하나님은</u> <u>빛이시고, 그분 안에</u> <u>는 어둠이 없다.</u>	<u>Dit</u> is <u>nou</u> die boodskap wat ons <u>by</u> Hom gehoor het aan julle verkondig: God is lig <sub>2</sub> en daar is geen duisternis in Hom nie.  <u>우리가 그분에게 들</u> <u>었던 바로 그 소식을</u> <u>이제 너희에게 선포</u> <u>한다: 하나님은 빛이</u> <u>시고, 그분 안에는 어</u> <u>둠이 없다.</u>	<u>En hierdie</u> is die boodskap wat ons <u>van</u> Hom gehoor het ons verkondig dit aan julle: God is lig en daar is geen duisternis in Hom nie.  <u>그리고 이는 우리가</u> <u>그분으로부터 들었</u> <u>고 너희에게 선포하</u> <u>는 소식이다: 하나</u> <u>님은 빛이시고 그분</u> <u>안에는 어둠이 없다.</u>
6 <u>Ἐὰν εἴπωμεν ὅτι</u> <u>κοινωνίαν ἔχομεν</u> <u>μετ’ αὐτοῦ καὶ</u> <u>ἐν τῷ σκότει</u> <u>περιπατῶμεν,</u> <u>ψευδόμεθα καὶ</u> <u>οὐ ποιοῦμεν τὴν</u> <u>ἀλήθειαν.</u>	As ons <u>sê</u> dat ons <u>met</u> Hom <u>gemeenskap</u> het en in die duisternis <u>wandel.</u> <sup>22)</sup> <u>dan</u> lieg ons en doen nie die waarheid nie. <u>만일 우리가 그분과</u> <u>함께 사귀을 가지고</u> <u>있다고 말하면서 어둠</u> <u>안에 행한다면, 그리</u> <u>면 우리는 속이고 진</u> <u>리를 행하지 않는다.</u>	As ons <u>beweer</u> dat ons <u>aan</u> Hom <u>deel</u> het <sub>2</sub> en <u>ons lewe</u> in die duisternis, lieg ons en <u>handel</u> ons nie <u>volgens</u> die waarheid nie. <u>만일 우리가 그분을</u> <u>향해 뭍을 가지고 있</u> <u>다고 주장하고, 우리</u> <u>가 어둠 안에 산다면,</u> <u>우리는 속이고 진리를</u> <u>따라 행하지 않는다.</u>	As ons <u>sê</u> dat ons <u>gemeenskap met</u> Hom het en die duisternis <u>optree</u> , lieg ons en <u>doen</u> ons nie die waarheid nie, <u>만일 우리가 그분과</u> <u>함께 사귀을 가지고</u> <u>있다고 말하면서 어</u> <u>둠 안에 행한다면,</u> <u>우리는 속이고 진리</u> <u>를 행하지 않는다.</u>

19) 1933/1953년판은 콜론 13에서 오래된 대문자 사본(비평사본) 대신 소문자 사본(ὑμῖν)을 따른다.

20) 1933/1953년판은 콜론 14에서 소문자 사본(ὑμῶν)을 따른다.

21) 1933/1953년판과 2012년판의 ‘volkome’(perfect, complete)와 1983년판의 ‘volledig’(complete, comprehensive)는 의미상 별 차이가 없다. D. B. Bosman, I. W. van der Merwe, and L. W. Hiemstra, eds., *Tweetalige Woordeboek* (Kaapstad: Tafelberg, 1984), 605.22) 1933/1953년판의 ‘wandel’에 περιπατέω처럼 ‘걷다’(walk) 혹은 ‘행하다’(conduct)라는 의미가 있다. D. B. Bosman, I. W. van der Merwe, and L. W. Hiemstra, *Tweetalige Woordeboek*, 625; J. P. Louw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 1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93), 209.

GNT <sup>6</sup>	<아프리카스 성경> (1933/1953)	<아프리카스 성경> (1983)	<그리스어-아프리카스 행간성경>(2012)
<p>7 ἐὰν δὲ ἐν τῷ φωτὶ περιπατῶμεν ὡς αὐτός ἐστιν ἐν τῷ φωτὶ, κοινωνίαν ἔχομεν μετ' ἀλλήλων καὶ τὸ αἷμα Ἰησοῦ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καθαρίζει ἡμᾶς ἀπὸ πάσης ἁμαρτίας.</p>	<p><u>Maar</u> as ons in die lig <u>wandel</u> soos Hy in die lig is, <u>dan</u> het ons <u>gemeenskap</u> met mekaar; en die bloed van Jesus <u>Christus</u>, sy Seun, reinig ons van <u>alle</u> sonde. 그러나 <u>그분이</u> 빛 안에 계시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빛 안에 <u>행한다면</u>,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귀을 가진다; 그리고 <u>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u>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p>	<p><u>Maar</u> as ons in die lig <u>lewe</u> soos Hy in die lig is, het ons met mekaar <u>deel</u> aan <u>dieselfde</u> <u>gemeenskap</u> en reinig die bloed van Jesus, sy Seun, ons van <u>elke</u> sonde. 그러나 <u>그분이</u> 빛 안에 계시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빛 안에 <u>살</u> <u>다면</u>, 우리는 서로 <u>동일한</u> 사귀을 가지고 <u>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u> 우리를 <u>각각의</u>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p>	<p><u>maar</u> as ons in die lig <u>optree</u> soos Hy in die lig is, het ons <u>gemeenskap</u> met mekaar en die bloed van Jesus, sy Seun, reinig ons van <u>elke</u> sonde. 그러나 <u>그분이</u> 빛 안에 계시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빛 안에 <u>행</u> <u>하면</u>, 우리는 서로 사귀을 가지고 <u>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u> 우리를 <u>각각의</u>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p>
<p>8 ἐὰν εἴπωμεν ὅτι ἁμαρτίαν οὐκ ἔχομεν, ἐαυτοὺς πλανῶμεν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οὐκ ἔστιν ἐν ἡμῖν.</p>	<p>As ons <u>sê</u> dat ons <u>geen</u> sonde het nie, <u>mislei</u> ons onself en die waarheid is nie in ons nie. 만일 우리가 아무런 죄 없다고 <u>말하면</u>, 우리는 우리 자신을 <u>속이고</u>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p>	<p>As ons <u>beweer</u> dat ons <u>nie</u> sonde het nie, <u>bedrieg</u> ons onself en is die waarheid nie in ons nie.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u>속이고</u>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p>	<p>As ons <u>sê</u> dat ons <u>nie</u> sonde het nie, <u>mislei</u> ons onself en die waarheid is nie in ons nie.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u>말하면</u>, 우리는 우리 자신을 <u>속이고</u>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p>
<p>9 ἐὰν ὁμολογῶμεν τὰς ἁμαρτίας ἡμῶν, πιστός ἐστιν καὶ δίκαιος, ἵνα ἀφῆ ἡμῖν τὰς ἁμαρτίας καὶ καθάρσιν ἡμᾶς ἀπὸ πάσης ἀδικίας.</p>	<p>As ons ons sondes bely, Hy is getrou en regverdig om ons die sondes te vergewe en ons van <u>alle</u> ongeregtigheid te reinig.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u>그분은</u>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u>모든</u>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p>	<p><u>Maar</u> as ons ons sondes bely - Hy is getrou en regverdig, Hy vergewe ons ons sondes en reinig ons van <u>alle</u> ongeregtigheid. <u>그러나</u>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 <u>그분은</u> 미쁘시고 의로우사, <u>그분은</u> 우리 죄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u>모든</u>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p>	<p>As ons ons sondes bely, Hy is getrou en regverdig om ons die sondes te verwege en ons te reinig van <u>elke</u> ongeregtigheid.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u>그분은</u>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u>각각의</u>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p>

GNT <sup>6</sup>	<아프리카스 성경> (1933/1953)	<아프리카스 성경> (1983)	<그리스어-아프리카스 行间성경>(2012)
10 ἐὰν εἴπωμεν ὅτι οὐχ ἡμαρτήκαμεν, ψεύστην ποιοῦμεν αὐτὸν καὶ ὁ λόγος αὐτοῦ οὐκ ἔστιν ἐν ἡμῖν.	As ons <u>sê</u> dat ons nie gesondig het nie, <u>dan</u> maak ons Hom tot 'n leuenaar en is sy woord nie in ons nie.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u>그러면</u> 우리가 그분을 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As ons <u>beweer</u> dat ons nie gesondig het nie, maak ons Hom <u>tot</u> leuenaar en is sy woord nie in ons nie.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u>주장하면</u> ,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As ons <u>sê</u> dat ons nie gesondig het nie, maak ons Hom 'n leuenaar en sy woord is nie in ons nie.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 4. 요한1서 1장의 아프리카스 성경 번역의 특징

##### 4.1. 구문상 특징

아프리카스 성경들은 쉼표, 마침표, 콜론 그리고 세미콜론을 그리스어 성경보다 조금 더 사용하여 단문 형식으로 번역하는 경향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아래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구두점 비교

	GNT <sup>6</sup>	<아프리카스 성경> (1933/1953) <sup>23)</sup>	<아프리카스 성경>(1983)	<그리스어-아프리카스 行间성경>(2012)
쉼표	12회	14회	12회	12회
마침표	7회	8회	12회	8회
하이픈	2회	2회	1회	1회
콜론	1회	1회	1회	1회
세미 콜론	0회	2회	3회	1회

23) 1933/1953년판의 저본인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의 요일 1장에 마침표는 8회, 세미콜론은 1회, 그리고 쉼표는 무려 35회나 등장한다. 그리고 이 저본은 단락을 나누거나 제목을 달지 않았다.

## 4.2. 구조상 특징

위(2.2.)에서 연구자는 구조 분석을 통해 요한1서 1장이 네 단락으로 나누어짐을 제시했다. 그런데 1933/1953년판은 요한1서 1장을 아래와 같이 세 단락으로 나눈다: (1) 1-4절: “Die Woord het in die Verskyn”(말씀이 나타나심), (2) 5-7절: “God is lig”(하나님은 빛이시다). (3) 8-10절: “Die Belydenis van Sonde en die Vergifnis”(죄 고백과 용서). 그런데 1983년판은 GNT<sup>5</sup>처럼 두 단락으로 나눈다: (1) 1-4절: “Die Woord wat die Lewe is”(생명이신 말씀), (2) 5-10: “God is lig”(하나님은 빛이시다).

1983년판처럼 두 플레시(P. J. du Plessis)는 요한서신 주석에서, 요한1서 1장을 두 단락으로 나눈다. (1) 1-4절: 사권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us, die Bron van die gemeenskap), 5-10절: 사권의 근거인 구원(Versoening as grond van die gemeenskap).<sup>24)</sup> 그리고 두 란드(J. A. du Rand)는 콜론을 아주 세밀하게 47개로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1서 1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두 플레시와 유사하게 나눈다. (1) 1-4절: 서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Inleiding: Getuienis oor Jesus Christus, die lewe), (2) 5-10절: 빛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빛 안에서의 삶(Intieme persoonlike verhouding met God wat lig is; Lewe in die lig).<sup>25)</sup> 쿠찌에(J. C. Coetzee)도 비슷하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 (1) 1-4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말씀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2) 5-10절: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요청.<sup>26)</sup> 이렇게 요한1서 1장을 두세 주제어를 따라 둘 혹은 세 단락을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예. 말씀-빛-사죄, 사권의 근원-사권의 근거, 생명-삶). 하지만 이런 구조는 요한이 제시한 사도의 흐름에 나타난 서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두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프리카스 성경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본문의 구조를 더 큰 단락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고 확립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요한1서 2장의 경우, 1933/1953년판은 2등분한다. (1) 1-17절(계명을 지킴), (2) 18-29절(적그리스도). 그러나 1983년판은 요한1서 2장을 5등분한다. (1) 1-6절(우

24) 란드 아프리카스 대학교(Randse Afrikaanse Universiteit)의 P. J. du Plessis, *Die Briewe van Johannes* (Kaapstad: N. G. Kerk-Uitgewers, 1978), 17-23.

25) 란드 아프리카스 대학교의 J. A. du Rand, “1 Johannes”, W. Vosloo and F. J. van Rensburg, eds., *Die Bybelennium: Eenvolumekommentaar* (Vereeniging: CUM, 1999), 1746-1747.

26) PUCHE의 J. C. Coetzee, “The Letter of John”, A. B. du Toit ed., *The Gospel of John; Hebrews to Revelation: Introduction and Theology*, Guide to the New Testament VI (Pretoria: N. G. Kerk-Uitgewers, 1988), 211. 참고로 2012년판은 단락을 나누지 않는다.

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 (2) 7-11절(새 계명), (3) 12-17절(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4) 18-27절(적그리스도), (5) 28-29절(하나님의 자녀).<sup>27)</sup>

### 4.3. 절별로 본 번역의 특징

#### 4.3.1. 1절

콜론 1-4와 콜론 10의 중성 단수 관계대명사  $\delta$ 를 아프리카스 성경 1933/1953년판과 2012년판은 중성 wat(which)로 번역한다.<sup>28)</sup> 하지만 1983년판은 대문자로 남성형 Hom(He)으로 번역하여, 관계대명사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임을 분명히 밝힌다.<sup>29)</sup> 콜론 1의 미완료 동사  $\eta\nu$ 을 세 아프리카스 성경 모두 과거형 was(있었다)라고 번역한다.<sup>30)</sup>

콜론 2에서 1983년판은 self(자신을)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강조한다. 그리고 콜론 3에서 1933/1953년판은  $\epsilon\omega\rho\acute{\alpha}\chi\alpha\mu\epsilon\nu$ 을 gesien(보았다)으로, 콜론 4의  $\epsilon\theta\epsilon\alpha\sigma\acute{\alpha}\mu\epsilon\theta\alpha$ 를 aanskou(주목했다)라고 정확하게 구분하여 번역한다.<sup>31)</sup> 하지만 1983년판과 2012년판은  $\epsilon\omega\rho\acute{\alpha}\chi\alpha\mu\epsilon\nu$ 과  $\epsilon\theta\epsilon\alpha\sigma\acute{\alpha}\mu\epsilon\theta\alpha$ 를 구분하지 않고 gesien(보았다)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콜론 3에서 1983년판은 eic(자신의)를 추가하여 의역할 뿐 아니라, 콜론 4에서 그리스어 원문에 없는 ja(그렇다)도 추가한다.

콜론 5의  $\epsilon\psi\eta\lambda\acute{\alpha}\phi\eta\sigma\alpha\nu$ 을 geraak(만졌다)라고 번역하는 1983년판과 2012년판과 달리, 1933/1953년판은 getas(더듬었다, 만졌다)라고 약간 다르게 번역한다.<sup>32)</sup> 콜론 5에서 1983년판은  $\zeta\omega\eta\varsigma$ 를 소문자(lewe)가 아니라 강조하는 대문자(Lewe)로 표기하며, 바로 앞의  $\lambda\acute{o}\gamma\omicron\upsilon$ (Woord)와 동격으로 처리하여 말

27) “Die Bybel (1953)”, <https://www.bible.com/bible/5/1JN.2.AFR53> (2019. 5. 7.).

28) 1933/1953년판처럼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Hetgeen(which)이라고 번역한다. 1933년판 번역자들은 자신들이 읽고 암송한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추론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J. C. Steyn, “Die Afrikaans van die Bybelvertaling van 1933”, 143.

29) AD 1세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성(性) 규범에 대한 탐구가 정확한 성경 번역을 보장하지 않으나 번역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J. Punt, “(Con)figuring Gender in Bible Translation: Cultural, Translational and Gender Critical Intersections”, *HTS Teologiese Studies* 70/1 (2014), 9.

30) 1933년판은 미완료 동사를 과거 진행의 의미보다는 주로 역사적 현재형으로 번역했다. 네덜란드어 단어 수의 약 60%에 불과한 아프리카스로 세밀하고 정확한 번역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J. C. Steyn, “Die Afrikaans van die Bybelvertaling van 1933”, 148.

31) 아프리카스 동사 aanskou의 의미는 “look at/inspect/examine”이지만, 동사 sien은 ‘see/watch’라는 뜻이다. D. B. Bosman, I. W. van der Merwe, and L. W. Hiemstra, *Tweetalige Woordeboek*, 14, 461.

32) 1933/1953년판처럼,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getast라고 번역한다.

씀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2012년판은 콜론 5와 콜론 6의 ζωή를 각각 대문자(Lewe)와 소문자(lewe)로 일관성 없이 번역한다. 콜론 5의 περί 이하를 1933/1953년판과 2012년판은 aangaande(대하여)라고 직역한다. 1절 끝에 있는 GNT<sup>5</sup>의 하이픈(-)을 1933/1953년판과 2012년판이 그대로 반영한다. 1절만 두고 본다면, 1983년판은 단어를 추가하여 기능적 의역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 4.3.2. 2절

콜론 6에서 1933/1953년판은 καί를 en(그리고)으로 직역한다. 콜론 6의 아오리스트 수동태 동사 ἐφανερώθη를 1933/1953년판과 2012년판은 현재시제 수동태 is geopenbaar(나타나다)로 번역하지만, 1983년판은 과거시제 능동태 het gekom(왔다)으로 번역한다. 하지만 콜론 9에서 1983년판은 동일한 동사 ἐφανερώθη를 현재시제 수동태 geopenbaar is(나타나신다)라고 번역하기에 일관성이 결여된다. 콜론 6-7의 ζωή를 1933/1953년판은 소문자(lewe)로, 1983년판과 2012년판은 대문자(Lewe)로 번역한다. 콜론 7에서 1983년판은 daarvan(관하여)을 추가하여 의역한다. 콜론 8에서 GNT<sup>5</sup>는 전치사 πρὸς(toward)를 통해서 ‘생명’이 성부 하나님과 누린 관계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프리카스 성경 3개는 이 전치사를 ‘향하여’(πρὸς)가 아니라 ‘함께’(by)라고 의역함으로써, 성부와 성육신 이전에 말씀으로 선재(先在)하신 성자 사이의 관계를 생생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콜론 9에서는 GNT<sup>5</sup>의 하이픈(-)을 1933/1953년판만 그대로 반영한다. 2절에서 아프리카스 성경들은 동사의 시제와 태(態), 그리고 전치사의 번역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 4.3.3. 3절

1절처럼 콜론 10의 중성 관계대명사 ὅ를 1983년판만 남성형 Hom(그분)이라고 의역한다. 콜론 10의 καὶ ὑμῖν을 1933/1953년판과 2012년판은 julle ook/ook julle(너희에게도)라고 각각 정확히 번역하며,<sup>33)</sup> 콜론 11에서도 마찬가지다. 1933/1953년판<sup>34)</sup> 그리고 1983년판과 달리, 2012년판은 콜론 12의 접속사 καὶ를 번역하지 않는다. 그리고 콜론 12에서 1983년판은 그리스어 원문에 없는 daarvan(which)을 추가한다. 3절의 경우, 특별히 1983년판은 대명사의 성(性)을 의역하거나 단어를 번역에서 빠트리거나 추가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번역에 일관성은 결여된다.

33)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ook(also)라고 번역한다.

34)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En(그리고)이라고 번역한다.

#### 4.3.4. 4절

콜론 13에서 1935/1953년판은 접속사 *καί*를 그대로 번역한다.<sup>35)</sup> 콜론 13에서 1933/1953년판은 *aan julle*(너희에게)를 추가하는데, 일부 대문자 사본(A<sup>c</sup> C)과 대다수 소문자 사본이 이 표현을 지지한다. 하지만 본문비평상 주요 대문자 사본이 지지하듯이 *aan julle*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 콜론 14에서 1933/1953년판은 소문자 사본을 따라 *julle*(너희의)라고 번역한다.<sup>36)</sup> 콜론 13의 지시대명사 *ταῦτα*(이것들을)를 1983년판은 단수형 *Dit*(그것을)로 오역한다. 콜론 14의 *πεπληρωμένη*는 1935/1953년판과 1983년판처럼 *volkome*(충만하다)로 번역하든, 2012년판처럼 *volledig*(완전하다)로 번역하든 의미상 차이는 적다. 따라서 4절에서 1983년판은 전치사와 지시대명사 번역에서 부정확하며, 사본상 1933/1953년판은 2회에 걸쳐 소문자사본을 따른다. 이렇게 1933/1953년판이 소문자 사본을 따르는 것은 그 당시 발전 중이던 본문비평 연구의 성과를 발 빠르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 4.3.5. 5절

콜론 15에서 1983년판은 접속사 *καί*를 번역하지 않는다. 그러나 콜론 15에서 1983년판은 그리스어 원문에 없는 시간의 부사 *nou*(이제)를 추가한다. 콜론 15에서 2012년판은 지시대명사 *αὕτη*를 *hierdie*(이것)라고 직역한다. 콜론 16에서 1983년판은 전치사구 *ἀπ’ αὐτοῦ*를 *by Hom*(그분과 함께)이라고 부정확하게 번역하지만, 1933/1953년판과 2012년판은 *van Hom*(그분으로부터)이라고 직역하여 정확히 번역한다.<sup>37)</sup> 5절에서 특히 1983년판은 접속사와 전치사구의 번역 등에서 미흡하다.

#### 4.3.6. 6절

콜론 20에서 1983년판은 *εἴπωμεν*(말하다)을 *beweer*(주장하다)라고 다소 강하게 번역한다.<sup>38)</sup> 콜론 20에서 1983년판은 전치사구 *μετ’ αὐτοῦ*(그분과 함께)를 *met Hom*(그분과 함께)이 아니라 전치사 *aan*([그분을] 향해)을 사용하여 의역한다. 그리고 콜론 20에서 1983년판은 그리스어 원문에 없는

35)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en*(그리고)이라고 번역한다.

36)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uw*(너희)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공인 본문(1550)은 GNT<sup>5</sup>처럼 ‘우리의’라고 쓴다.

37)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van Hem*(그분으로부터)이라고 번역한다. 참고로 1923년에 아프리카스 번역가들은 네덜란드어 *Hem*을 *Hom*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J. C. Steyn, “Die Afrikaans van die Bybelvertaling van 1933”, 147.

38) D. B. Bosman, I. W. van der Merwe, and L. W. Hiemstra, *Tweetalige Woordeboek*, 67.

deel(몫)을 추가한다. 콜론 21에서 1983년판은 περιπατῶμεν을 ons lewe(우리가 산다면)라고 번역하는데, 1933/1953년판은 ‘우리가 걷는다면’(wandel)으로 직역하고, 2012년판은 ‘행한다면’(optree)으로 번역한다.<sup>39)</sup> 콜론 22에서 1933/1955년판은 접속사 καί를 빠트리지 않고 dan(그러면)이라 번역한다.<sup>40)</sup> 콜론 22의 마지막 구두점을 2012년판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표기한다. 6절에서 1983년판은 동사와 전치사구를 의역하거나 단어를 추가하여 의미를 나름대로 분명히 하려고 애쓴다.

#### 4.3.7. 7절

콜론 23의 περιπατῶμεν을 1933/1953년판은 ‘걷다’(wandel)로,<sup>41)</sup> 1983년판은 ‘살다’(lewe), 2012년판은 ‘행하다’(optree)라고 번역하지만 의미상 차이는 없다. 콜론 25에서 1983년판은 그리스어 원문에 없는 dieselfde(동일한)를 추가한다. 콜론 26에서 1933/1953년판은 그리스어 사본 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Christus)를 넣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긴 호칭을 통해 고등기독론 형식으로 번역한다(참고. 요일 2:1; 4:2; 5:1, 20).<sup>42)</sup> 공인 본문(1550)과 1933/1953년판의 저본인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Jezus Christus(예수 그리스도)라고 표기한다.<sup>43)</sup> 콜론 26에서 1983년판과 2012년판은 형용사 πάσης(모든)를 alle(모든, 1933/1953년판;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 대신에 elke(every)라고 번역하지만 의미상 차이는 거의 없다. 7절에서 1983년판은 단어를 추가하여 의역을 시도하며, 1933/1953년판은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을 따라 고등기독론적 표현을 추가하여 의역한다.

#### 4.3.8. 8절

콜론 20처럼 콜론 27에서 1983년판은 εἶπωμεν(말하다)을 beweer(주장하다)라고 강하게 번역한다. 콜론 27에서 1933/1953년판은 οὐκ을 번역하면서 nie(no)보다 다소 강한 부정어 geen(no)을 사용한다.<sup>44)</sup> 콜론 28번에서 πλανῶμεν

39)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wandelen(걷다)으로 번역한다.

40)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zo(그러면)라고 번역한다.

41)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wandelen(걷다)이라고 번역한다.

42) 현재 새로운 아프리카스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 중에 성경의 영감성이나 구약의 기독교적 메시지를 확신하지 못한 자들도 있어, 우려하고 있다. 참고. A. B. Geysier-Fouché, “Bybelvertalers en Bybelvertalings die Afgelope Honderd Jaar, in Besonder vanuit die Fakulteit Teologie van die Universiteit van Pretoria”, 10.

43) “1637 The Dutch Statenvertaling Version”, <https://archive.org/details/1637TheDutchStatenvertalingVersion/page/n1829> (2019. 5. 7.).

44)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geen(no)으로 번역한다.

을 1933/1953년판과 2012년판은 *mislei*(속이다)로, 1983년판은 *bedrieg*(속이다)라고 번역하지만 의미상 차이는 없다. 8절의 경우 아프리카스 성경들은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지만, 번역은 대체로 무난하다.

#### 4.3.9. 9절

콜론 30에서 1983년판은 그리스어 원문에 없는 접속사 *Maar*(그러나)를 추가한다. 콜론 31에서 1983년판은 원문에 없는 하이픈(-)을 추가한다. 콜론 33에서 형용사 *πάσης*(모든)를 1933/1953년판과 1983년판은 *alle*(모든)으로 직역하고,<sup>45)</sup> 2012년판은 *elke*(every)로 번역한다. 그런데 콜론 26에서 1983년판은 *πάσης*(모든)를 *alle*(모든) 대신 *elke*(every)로 번역한 바 있다. 9절에서 1983년판은 원문에 없는 접속사와 하이픈을 추가하여 의역한다.

#### 4.3.10. 10절

콜론 20과 27처럼, 콜론 34에서 1983년판은 *εἰπωμεν*(말하다)을 *beweer*(주장하다)라고 강하게 번역한다. 콜론 35에서 1933/1953년판과 2012년판은 그리스어 원문에 없는 부정 관사('n)를 추가하고,<sup>46)</sup> 1983년판은 전치사 *tot*(to)를 추가한다. 10절에서 아프리카스 성경들은 단어를 추가하여 의역하는 경향이 있다.

#### 4.3.11. 도표 요약 및 평가

위의 논의는 아래의 도표로 요약된다.

번역의 특징	횟수	해당 본문
단어 추가하여 의역	9	1933/1953년판(콜론 13, 26, 35), 1983년판(콜론 2, 7, 12, 15, 25, 30)
성과 수 변경	6	1983년판(콜론 1-4, 10, 13) <sup>47)</sup>
단어 생략	5	1983년판(콜론 10, 13, 15), <sup>48)</sup> 2012년판(콜론 12, 13)
동사의 부정확한 번역	5	1933/1953년판(콜론 6), 1983년판(콜론 3, 9), 2012년판(콜론 3, 6)

45)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alle zonde*(모든 죄들)라고 번역한다.

46)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도 *een*(one)이라 번역한다.

47) 1933년판의 성차별 용어를 1983년판이 수정했지만, 여전히 1983년판에 남아있는 인종, 성, 그리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관하여 H. F. Stander, "Afrikaanse Bybelvertalings: 'N Toekomstvisie", *Skriften Kerk* 22:2 (2001), 380-382를 보라.

48) 물론 언어 체계가 다르므로, 원천 본문(source text)의 모든 단어에 담긴 형식과 내용을 번역

번역의 특징	횟수	해당 본문
강세형 단어 사용	4	1933/1953년판(콜론 27), 1983년판(콜론 20, 27, 34)
전치사의 부정확한 번역	4	1933/1953년판(콜론 8), 1983년판(콜론 8, 20), 2012년판(콜론 8)
생략 가능한 접속사와 전치사의 직역	3	1933/1953년판(콜론 22), 1983년판(콜론 16), 2012년판(콜론 15)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	2	1983년판(콜론 26, 33)
그리스어 원문과 다른 구두점과 하이픈	2	1983년판(콜론 9, 31)

남아공에서 현재 사용 중인 1983년판은 단어를 추가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많고, 성과 수를 변경하거나 동사의 강세형을 즐겨 사용한다. 그리고 1983년판은 동사와 전치사를 부정확하게 번역하는 비율도 높고, 그리스어 원문과 다른 구두점과 하이픈도 종종 사용한다. 1933/1953년판은 2회에 걸쳐 소문자 사본을 따라 번역하는데, 이 성경이 공인 본문과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sup>49)</sup> 1933/1953년판과 2012년판은 1983년판보다 직역에 가깝다. 따라서 1933/1953년판에서 1983년판으로 개정했을 때 의역이 강화되었지만 정확한 번역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성경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역동적인 등가 방식 안에 담아 번역하는 것이 어렵기에, 대체로 의역은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다.<sup>50)</sup> 2012년판은 강단용이 아니라 목회자용인데, 1983년판은 물론 1933/1953년판보다 그리스어 원본에 더 충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33/1953년판은 본문비평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문을 반영하거나, 다소 의아한 방식으로 단어를 추가한 경우가 있다.<sup>51)</sup>

된 본문(translated text) 안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C. Lombaard, “Hide and Seek. Aspects of the Dynamics of Bible Translation”, *Acta Theologica* 29 (2009), 4.

49) J. A. Naudé, “Soos ’n Hamer wat ’n Rots Vermorsel”, 64. 참고로 1618년 도르트(Dordt) 회의는 새로운 네덜란드어 성경을 번역할 것을 결의했으며, 정부에 재정적 후원을 요청했다. 도르트 회의는 번역 원칙으로 개혁주의 교리에 충실한 번역자들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대로 번역하되, 라틴어나 프랑스어 단어를 가급적 차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물이 1933년판의 저본 De Statenvertaling Bijbel(1637)이다. J. C. Steyn, “Die Afrikaans van die Bybelvertaling van 1933”, 132.

50) J. H. Roberts, “Dynamic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on”, *Neotestamentica* 8 (1974), 11-12, 18.

51) 1933년판의 경우, 구약성경 번역보다 신약의 경우 공인 본문을 더 의존했다. J. A. Naudé, “A Narrative Frame Analysis of the 1933 Afrikaans Bible”, 273.

## 5. 나오는 말

아프리카스 성경들에 나타난 번역의 전반적인 특징을, 그리스어 본문의 문체가 단순하고 간결한 요한1서 1장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3종류의 아프리카스 성경 번역에 나타난 장단점과 특징을 통시적으로 비교하면서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성경 번역의 방향을 찾는 것은 의의가 있다. 아프리카스 성경 번역의 특징은 무엇보다 현대 독자가 본문의 의미를 실제적인 방식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배려하면서도, 원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전달해야 함을 다시 교훈한다.<sup>52)</sup> 이런 논의를 반영하는 한글성경 번역을 제안하기 위하여 요한1서가 속한 요한서신 중 하나인 요한3서 1:10 『개역개정』이 적절한 예가 된다. 『개역개정』에서 정관사로 오해할 수 있는 인칭대명사(‘그’ → ‘그의’[αὐτοῦ])와 단수가 아닌 복수 명사(‘일’ → ‘일들’[ἔργα], ‘말’ → ‘말들’[λόγοις],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 →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τοὺς βουλομένους])의 정확한 번역이 필요하다. 또한 생략된 단어(‘이것들로’[ἐπὶ τούτοις])를 번역에 반영하는 교정도 필요하다.<sup>53)</sup> 이러한 교정은 현대 독자의 성경 이해를 돕고, 설교자가 본문의 의미를 회중에게 전달할 때도 유익을 줄 것이다.

원저자와 현대 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경 번역은 성경 번역자들이 수 세기 동안 고민해 온 난제이다. 이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단어와 본문의 통시적 분석을 공시적 해석으로 보완하거나, 담론 분석(혹은 본문언어학)을 통해 구문론과 의미론을 통합하고, 현대 언어학(화행이론, 화용론, 수사학)의 통찰을 번역과 주해에 접목시키고 있다.<sup>54)</sup>

본 연구가 앞으로 수행될 한글 성경 번역에도 통찰력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새로운 성경 번역은 최근 사본학, 성경해석학, 선교학, 문화인류학, 생태신학, 그리고 현대 언어학과 더불어 간학문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계는 이 글에서 연구한 아프리카스 성경 번역들은 물론, 많은 현대 성경 번역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52) 남아공에서는 1970년대부터 성경의 직역에서 벗어나 형식적 일치와 기능적인 역동적 의역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타겟 언어를 고려한 번역(not source-oriented but target-oriented translations)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 I. W. van der Merwe, “The Bible in Afrikaans”, 1; A. B. Geysler-Fouché, “Bybelvertalers en Bybelvertalings die Afgelope Honderd Jaar, in Besonder vanuit die Fakulteit Teologie van die Universiteit van Pretoria”, 2.

53) 정확한 성, 수, 인칭, 어순, 시제, 전치사, 접속사, 존칭어, 구두점, 장절 구분, 한글 도량형의 번역에 대해서는 송영목, “바른 성경과 개역개정판 비교 및 번역 제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교회와 문화』 36 (2016), 134-155를 보라.

54) 김상훈, “요한일서에서의 ‘코이노니아-조예’의 상관적 이해를 위한 의미론적 연구”, 81-83.

<주제어>(Keywords)

번역, 비교 분석, 1933/1953년판 아프리카스 성경, 1983년판 아프리카스 성경, 2012년판 그리스어-아프리카스 행간성경.

Translation, comparative analysis, Afrikaans Bybel 1933/1953, Afrikaans Bybel 1983, Interliniêre Grieks-Afrikaans Bybel 2012.

(투고 일자: 2020년 1월 15일, 심사 일자: 2020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4월 16일)

<참고문헌>(References)

- Bybel: Nuwe Vertaling*, Negende Druk, Kaapstad: Bybel Genootskap van Suid-Afrika, 1999; Eerste Druk, 1983.
- “Die Bybel (1953)”, <https://www.bible.com/bible/5/1JN.1.AFR53> (2019. 5. 7.).
- “1637 The Dutch Statenvertaling Version”, <https://archive.org/details/1637TheDutchStatenvertalingVersion/page/n1829> (2019. 5. 7.).
- 김상훈, “요한일서에서의 ‘코이노니아-조에’의 상관적 이해를 위한 의미론적 연구”, 「성경원문연구」 5 (1998), 80-93.
- 송영목, “바른 성경과 개역개정판 비교 및 번역 제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교회와 문화」 36 (2016), 133-158.
- Bosman, D. B., Van der Merwe, I. W., and Hiemstra, L. W., eds., *Tweetalige Woordeboek*, Kaapstad: Tafelberg, 1984.
- Coetzee, J. C., “The Letter of John”, A. B. du Toit, ed., *The Gospel of John; Hebrews to Revelation: Introduction and Theology*, Guide to the New Testament VI, Pretoria: N. G. Kerk-Uitgewers, 1988, 201-226.
- Coertzer, S. V., “The African Agent Discovered: The Recognition and Involvement of the African Biblical Interpreter in Bible Translation”, *Verbum et Ecclesia* 29:1 (2008), 77-90.
- Du Plessis, P. J., *Die Briewe van Johannes*, Kaapstad: N. G. Kerk-Uitgewers, 1978.
- Du Rand, J. A., “Analysis of the Johannine Letters”, *Addendum to Neotestamentica* 13 (1981), 1-23.
- Du Rand, J. A., “1 Johannes”, W. Vosloo and F. J. van Rensburg. eds., *Die Bybellennium: Eenvolume kommentaar*, Vereeniging: CUM, 1999, 1744-1754.
- Du Toit, A. B., “The Significance of Discourse Analysis for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Neotestamentica* 8 (1974), 54-79.
- Franklin, K. J. and Niemandt, C. J. P., “Vision 2025 and the Bible Translation Movement”, *HTS Teologiese Studies* 69:1 (2013), 1-8.
- Geyser-Fouché, A. B., “Bybelvertalers en Bybelvertalings die Afgelope Honderd Jaar, in Besonder vanuit die Fakulteit Teologie van die Universiteit van Pretoria”, *HTS Teologiese Studies* 73:1 (2017), 1-12.
- <http://www.sun.ac.za/english/faculty/arts/cebita> (2019. 5. 4.).
- Loba-Mkole, J.-C., “History and Theory of Scripture Translations”, *HTS Teologiese Studies* 64:1 (2008), 253-266.
- Lombaard, C., “Hide and Seek. Aspects of the Dynamics of Bible Translation”, *Acta Theologica* 29 (2009), 1-15.

- Louw, J. P. and Nida, 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 1,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93.
- Macnab, R., “The Emergence of Afrikaans as a Literary Languag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Arts* 105 (1957), 372-384.
- Naudé, J. A., “Soos ’n Hamer wat ’n Rots Vermorsel: Die Afrikaanse Bybel van 1933 as Vertaling”, *Acta Theologica* 29:2 (2009), 54-73.
- Naudé, J. A., “A Narrative Frame Analysis of the 1933 Afrikaans Bible”, *Studia Historiae Ecclesiasticae* 37:1 (2011), 255-274.
- Nida, E. A., et al., *Style and Discourse*,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83.
- Punt, J., “(Con)figuring Gender in Bible Translation: Cultural, Translational and Gender Critical Intersections”, *HTS Teologiese Studies* 70:1 (2014), 1-10.
- Roberts, J. H., “Dynamic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on”, *Neotestamentica* 8 (1974), 7-20.
- Stander, H. F., “Afrikaanse Bybelvertalings: ’N Toekomsvisie”, *Skrif en Kerk* 22:2 (2001), 379-391.
- Steyn, J. C., “Die Afrikaans van die Bybelvertaling van 1933”, *Acta Theologica* 29 (2009), 130-156.
- Van der Merwe, C. H. J., “The Bible in Afrikaans: A Direct Translation-A New Type of Church Bible”, *HTS Teologiese Studies* 68:1 (2012), 1-8.
- Van der Merwe, C. H. J., “How ‘Direct’ can a Direct Translation be?: Some Perspectives from the Realities of a New Type of Church Bible”, *HTS Teologiese Studies* 72:3 (2016), 1-11.
- Van der Watt, J., Barkhuizen, J., and Du Toit, H., eds., *Interliniêre Bybel: Grieks-Afrikaans*, Vereeniging: CUM, 2012.
- Van Rensburg, F. J., ed., *Conceiving a Sermon: From Exegesis to Delivery*, Potchefstroom: Potchefstroom Theological Publication, 2015.
- Vosloo, W., “Hoe om die Bybel Beter te verstaan: Verklarings van die Bybel in Afrikaans”, *Verbum et Ecclesia* 22:1 (2001), 178-190.

<Abstract>

**An Analysis of the Afrikaans Bible Translations:  
Focused on 1 John 1**

Youngmog Song  
(Kosin University)

There are eleven official languages spoken by South Africans. Among them is Afrikaans, a simple form of Dutch that has been spoken since the immigration from European countries in 1652.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frikaans Bible translations. To accomplish this, a comparison is made among GNT<sup>5</sup> and three different Afrikaans translations published in 1933/1953, 1983, and 2012. In order to critique the Afrikaans translations, syntactical and structural analyses of 1 John 1 in Afrikaans give insight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this study, it is evident that Afrikaans translations prefer simple sentences over complex and compound ones. In addition, Afrikaans translations have a tendency to go from literal translation to dynamic equivalence and then back to being literal. Despite its merit of being effective communication for modern readers, the use of the Afrikaans Bible published in 1983 as the official Scripture translation for modern Afrikaans churches has been problematic as it omits or adds words, incorrectly renders verbs and prepositions, and changes the gender of words. For this reason, a new translation of the Afrikaans Bible is necessary to provide modern readers with the correct rendering of the original author's message in readable and practical form. Over the last few centuries, Bible translators have been seeking this ideal to find an appropriate balance. This researcher also hopes this study can help forth-coming Korean Bible translations achieve this goal.